

[일본, 2013년 9월]

1. 관할지역 현장 이슈

▶ 「Fish-1 그랑프리」 개최 -생선요리 상품의 정상을 결정-

수산청은 일본국내생산의 소비확대를 목표로 어류의 정상을 정하는 「생선 나라의 행복 Fish-1 그랑프리」를 개최. 10월1-25일까지 모집을 하고, 서류전형을 통과 후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시와 도쿄, 롯본기 2회장에서 일반투표를 실시하고 수상작품을 결정함.

지역에 사람을 불러들여서 「이 고장생선의 미식가 커넥션테스트」와 지역을 회복하는 「일본산 어류 상품콘테스트」 2부분으로 전개함. 미식가콘테스트에서는 지역에서 자주 먹을 수 있지만 전국에서는 지명도가 낮은 생선이나 어부와 어획 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이 고장 가정에서는 먹을 수 없는 생선을 사용한 메뉴를 모집함. 상품콘테스트는 일본국산 수산물을 사용한 「일본산 어류」에 거점을 해당하는 지역특유의 생선과 주목도가 낮은 생선을 가공한 상품을 받아들임.

양 콘테스트 모두 서류심사에서 결승상품을 선고 후, 야마구찌현 시모노세끼시(11월24일 개최예정)와 도쿄, 롯본기(2014년 1월18일 예정)에서 일반인 시식심사에 따라 순위를 붙이고, 2회장 합계표로 수상작품을 정함. 응모방법은 10월 이후 www.fish-1gp.jp 링크하면 관람할 수 있음.

▶ 일본국내 수산물 재고 (7월말) -전국 83만톤 저수준 이어짐-

수산청이 10일 발표한 「냉장수산물 유통통계」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국재고량은 작년 동기에 비해서 9%감소 83만3480톤임. 냉동품 중에 전갱이가 일본산 어획 호전으로 회복세를 보였지만, 대형상품 연어류, 고등어류, 꽂치, 오징어 등 감소가 계속 이어져서 6월말부터는 2%감소함.

문어류, 날개다랑어, 명태포는 전과 다름 없이 전년보다 상향했지만, 전체 월간입고량은 4%감소, 월간출고량은 2%감소, 냉동품은 조금 저조하지만 냉장품은 연어와 송어 중심으로 활발했음.

냉동품 월말재고로 전년보다 하향한 주요 어종류는 고등어류, 꽂치, 오징어 등 고등어류는 입출고와 함께 30%감소. 6월말부터는 16%감소하고, 전년비 36%감소하고, 월말재고량은 4만톤임

꽂치는 새로운 생선이 시작했지만 냉동재고가 늘어난 것은 9월부터임.

전 월말 40%감소해서 계속해서 쌓아 올렸지만, 새로운 어류 조반이 기록적으로 저조해서 지금 직면하고 있는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춤하고, 오징어는 북일본 어항이 좋지 않아서, 전년동월비 39%감소, 전갱이는 6월부터 입고량이 전년비 61%증가하고 6월말부터 8%증가함.

그 밖에는 눈다랭이가 전년동월비 1%감소와 전년비율에 전환함. 작년보다 대폭증가 요인이 되었던 타이완산이 감소하고 앞바다의 어류가 좋지 않아서 급히 일본산 재고의 적정화가 진행, 8월 하순부터는 본격적으로 회복국면으로 들어감.

한편, 냉동품이고 전년에 비해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문어류, 날개다랑어, 명태포임. 문어류는 33%증가, 그 원인은 주로 싼 수입문어임. 수출입과 함께 전년비 30%증가하고, 활발하게 소매 점포에서 급속히 퍼지고 있음.

날개다랑어는 입고량이 작년부터 거의 반이 감소하고, 6월말부터 4%감소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여전이 46%많음. 이후 눈다랭이 가격변동이 계속되어서, 총동구매품으로서 특히 늘어나는 것 같음. 명태포는 17%증가, 6월말부터 2%감소했지만, 북미의 수입 명태포를 중심으로 작년보다 고수준 상황이 계속됨. 그 밖에 다진 생선이 서일본의 황어와 동남아시아의 생선원료의 침체상태로 17%감소하고, 기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대조적임.

한편, 소금절임 냉장품은 연어가 전년에 비해서 32%적지만, 6월말부터 27%증가함. 소매에서는 비교적 호조되어 회전율은 높음. 연어·송어 알은 가을연어의 시작이 늦어져서 징후를 짐작하고, 조달을 급하게 움직여서 입출고 모두 전년을 웃돌고 활발했음. 월말재고는 25%증가함.

2. 수산물 수입동향 및 전망

□ '13년 7월 수산물 수입 전년 대비 7.8증가 ('12년 7월 수산물 수입액은 123,913,077천엔)

(단위: 천엔, %)

구 분	'13년 7월 당월		'13년 1~7월 누계	
	금액	전년동기 대비(%)	금액	전년동기 대비(%)
수 산 물	133,602,639	7.8	860,810,872	△1.7

(자료 : 일본 농림수산물성)

□ 주요품목 수입동향

품목	'13.1~7월	'12.1~7월	전년 대비	1위		2위		3위	
				국가	금액	국가	금액	국가	금액
수산물 전체	860,810,872	875,772,350	△1.7	중국	157,508,159	태국	73,630,729	칠레	71,706,342
◦가다랑어류 (신선,냉장,냉동)	1,883,499	2,630,920	△28.4	인도네시아	1,740,549	한국	53,256	필리핀	32,211
◦참치류(신선,냉장,냉동)	98,338,424	107,761,563	△8.7	대만	18,381,899	한국	12,704,843	중국	8,339,088
- 날개다랑어	2,659,186	1,902,305	39.8	대만	1,109,819	바누아투	651,215	중국	348,585
- 황다랑어	13,920,614	17,498,638	△20.4	대만	3,716,423	인도네시아	2,523,791	필리핀	1,199,736
- 참다랑어	31,205,418	25,159,253	24.0	몰타	7,273,952	터키	4,699,363	멕시코	4,415,259
- 눈다랑어	33,348,799	43,939,943	△24.1	대만	13,145,214	중국	4,764,793	인도네시아	4,069,845
- 남방다랑어	3,229,473	3,123,409	3.4	호주	1,829,411	뉴질랜드	591,171	한국	464,337
◦활 넙치(030199220)	1,747,056	1,356,682	28.7	한국	1,747,056	-	-	-	-
◦삼치(신선,냉장,냉동)	1,461,646	1,491,386	△2.0	한국	1,434,170	중국	27,191	미쿠로 네시아	285
◦금눈돔(냉동)	1,076,285	1,601,894	△32.8	뉴질랜드	424,163	국제도 (뉴질랜드)	398,119	한국	186,837
◦오징어(活,신선,냉장,냉동)	27,837,116	26,692,014	4.3	중국	9,177,025	태국	6,754,863	베트남	3,299,050
- 몽고오징어	6,788,299	8,702,164	△22.0	태국	2,506,210	모로코	1,351,453	베트남	1,104,684
- 오징어(몽고제외)	21,048,817	17,989,850	17.0	중국	9,161,238	태국	4,248,653	베트남	2,194,366
◦전복(活,신선,냉장,냉동)	4,042,752	3,681,115	9.8	한국	2,618,004	호주	738,563	칠레	250,853
◦굴	2,127,117	1,816,985	17.0	한국	2,046,257	뉴질랜드	20,528	미국	17,567
- 굴(활,신선,냉장)	215,168	164,801	30.5	한국	166,495	미국	17,567	호주	14,876
- 굴(냉동)	1,859,098	1,598,348	16.3	한국	1,826,911	뉴질랜드	20,528	중국	8,190
- 굴(훈제)	52,851	53,836	△1.8	한국	52,851	-	-	-	-
◦패주(活,신선,냉장,냉동)	421,365	686,215	△38.6	한국	263,402	중국	137,534	필리핀	12,803
◦바지락(活,신선,냉장,냉동)	4,225,612	3,411,254	23.9	중국	2,907,696	한국	1,317,916	-	-
◦염건 수산물	33,335,068	33,061,061	0.8	중국	10,840,099	한국	6,742,940	칠레	4,247,518
- 건조김	1,680,218	1,779,135	△5.6	한국	1,235,008	중국	445,210	-	-
- 톳	1,795,990	1,571,926	14.3	한국	1,088,687	중국	707,303	-	-
- 미역	5,887,953	5,764,944	2.1	중국	4,638,913	한국	1,235,955	아르헨티나	13,085
◦게 조제품	11,277,948	11,557,727	△2.4	중국	6,486,536	한국	2,638,579	인도네시아	1,456,680
◦한천	2,608,062	2,333,135	11.8	칠레	1,238,438	한국	585,777	모로코	390,485

- 농림수산물성이 발표한 '13년 7월 및 누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수산물의 '13년 7월 수입량은 213,727,524천톤으로 전년동월비 6.3% 감소, 금액은 133,602,639천엔으로 7.8%의 증가를 보임. 1~7월 누계는 수입량 전년동기비 9.7% 감소, 금액은 1.7% 감소로 각각 폭은 다소 줄었으나 계속해서 감소되는 추세임
- 품목별로 보면 전복 수입량이 지난달 보다도 대폭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3~7월까지 수입량이 저조했지만 8~9월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참치류(신선,냉장,냉동) 계속해서 수입량이 상당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남방다랑어는 뉴질랜드산 수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한국산 수입이 3순위로 밀려남.

3. 타국산 (관할지역 생산, 타국수입산) 경합품목 동향

① 굴

- 10월은 히로시마산 중심으로 효고현, 미에현에서 입하하고 하순부터 오카야마도 시작함.
- 삼대륙(미야기현 지역) 생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관동지역의 수요도 서일본 산지로 집중하고 있어서 공급이 아주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입하량은 작년과 비슷하게 적을 것으로 보고, 시세도 2,200~1,500엔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됨

② 전갱이

- 전갱이는 큐슈(나가사키, 후쿠오카), 와카야마, 미에현, 아이치 방면에서 입하가 중심이 됨.
- 활전갱이는 오이타, 아와타하마 방면의 어획이 좋지 않아서, 입하는 적을 것으로 전망함.
- 전갱이는 히로시마, 효고, 도쿠시마 등 고기잡이가 끝나서, 나가사키, 와카야마, 아이치 방면에서 입하가 중심으로 됨.
- 큐슈방면은 큰 사이즈(250~350g), 와카야마는 중소사이즈(180~200g) 전망됨

③ 넙치

- 야마구찌, 시마네, 돗토리 지역에서 입가가 됨. 그밖에 300~450g사이즈 작은 넙치는 홋카이도, 아오모리, 동북부 방면에서 들어오고 입하량은 적을 것으로 내다봄.
- 1마리 4~5kg 1,350~800엔, 2마리 6~7kg 1,350~800엔

④ 삼치

- 일본 해안지역 (후쿠이, 교토, 이시카와, 토야마, 시마네, 돗토리, 야마카타, 아오모리)에서 입하가 중심이지만 이와테, 미야기에서도 입하가 있음.
- 전반적으로 양은 적을 것으로 전망하고, 시세는 작년보다는 조금 높을 것으로 예측. 일본산 2~3kg 2,000~700엔, 1.5~2kg 1,500~500엔, 1kg이하 1,200~300엔
- 한국산은 입하와 시세도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한국산 2~2kg 1,500~300엔, 1.5~2kg 1,000~300엔, 1kg이하 700~200엔

⑤ 참치

- 신선품 참다랑어는 수입산은 북미(캐나다, 보스톤)에서 입하가 예상됨. 황다랑어는 인도네시아, 대만에서 수입하고, 냉동 참다랑어와 인도참치는 우량품과 수량도 적을 것으로 내다봄
- 황다랑어와 눈다랑어도 우량품이 적어서 수량도 적음

4. 상반기 동향분석 [일본 수입수산물 현황]

8월 수산물 수입은 수산물국제유통협의회 (재무소발표 수입통관실적), 20만5,884톤, 1,292억 4,702만엔임. 엔저가로 수량은 전년동월비 12%감소, 금액은 8%증가함.

누계는 161만7,259톤 9,876억 4,721만엔임. 전년동기에 비해 수량은 9%감소하고 금액은 0.5%상향하고 있음.

□ 엔 저가로 수량은 12%감소, 금액은 8% 증가

- 태국산 감소로 달러가격이 높아지고 새우는 수량과 전년동월비 12% 내렸지만, 금액은 21% 상승했음. 주생산지의 평균수입 단가는 태국 1,077엔(전년동월 744엔), 인도네시아1,225엔(878엔), 인도 956엔(706엔), 베트남 1,207엔(882엔).
- 어획이 저조한 참치류는 황다랑어 수량은 42%감소하고 금액도 34%감소함. 눈다랑어도 전년동월을 30%하향하고 금액도 32%감소함.
- 연어·송어는 전년동월비 8%증가 반입. 금액은 48%증가함. 냉동베니는 알래스카산 1,482톤(2,131톤),러시아산 5,110톤(3,724톤) 등 6,602톤(5,911톤). 누계는 미국 2,732톤(전년동기 5,251톤), 러시아 1만 6,106톤(7,959톤)등 1만 8,861톤(1만 3,303톤). 칠레산 은연어는 2,188톤(전년동월 984톤)임.
- 칠레산 연어는 1,629톤(1,312톤),취레는 2,543톤(3,125톤)임. 문어 반입량은 30%증가하고, 오징어도 48%증가함. 저조한 생선은 아카우오 2.66배 1만톤을 넘고, 넙치와 가자미류는 2%감소함. 다진어육은 대구생선이 계약이 늦어져서 61%감소 5,512톤 통관됨
- 장어구이는 5%증가했지만 369톤 수입되었음. 8월 평균 외환시장은 1달러 98.47엔(전년동월 78.47엔) 달러기준 수입액은 13억 1,255만 달러로 전년동월(15억 2,490만달러)를 14% 하향했음.

□ 수출은 8개월 연속 증가

- 8월 수산물 수출금액은 수산물국제유통협의회 (재무소 발표 수입통관실적) 4만 1,268톤, 192억 4,456만엔임. 엔저가로 전년동월비에 비해 수량은 15%, 금액은 51% 각각 증가하고, 8개월 연속 증가추세임. 누계는 수량이 37%증가, 금액은 31%증가하고 있음.
- 작년보다 상향하고 수출도 계속하고 있는 고등어는 전년동월을 5% 증가해서 8,514톤 4월이후 호조했지만, 멀치는 1,035톤과 전년동월 1/4 정도임.
- 가다랑어도 전년동월 보다 29%상향하고 5,092톤이지만 작년보다 1/2수준임. 다진생선 대구는 중국산 중심으로 2.6배 2,072톤임.
- 어획이 저조한 오징어는 37%감소 897톤임. 수산반죽제품은 21%증가 664톤임.

□ 주요품목 현황

• 전갱이

- 중형(120g)이상 입하는 하루평균 6,500박스 한주간 동안 각지역의 거센 비바람의 영향으로 출회는 저조함. 나가사키산이 kg당 1,000엔 중심으로 상품에 따라 가격이 높음.
그러나, 고기잡이가 호전되어 9일 이후는 증가하고 가격도 낮아짐. 콩치가 동시에 급증하여 가격이 낮아진 것도 있지만, 12일에는 같은 산지가 400엔 중심으로 내림새가 빠름.
- 산지별 비율은 나가사키가 60%이상, 미야기 15%, 그밖에 야마구찌, 와카야마 등 이후에 치바산도 출회할 것으로 보임. 시세는 낮을 것으로 예상됨.

• 고등어

- 입하는 하루평균 4,700박스 아오모리현 하치노에산 시세는 600~700g kg당 400~250엔 등 전반적으로 적당함. 산지별 비율은 아오모리 70%이상, 그 외에 가나가와, 나가사키 등 아오모리산이 약간 줄어들어서 시세는 오르락 내리락 추세임.

• 멸치

- 하루평균 3,100박스이고 홋가이도산은 증가, 이후로는 시즈오카산도 증가했음. 주로 사이즈 100g 중심으로 홋가이도산 kg 500엔, 시즈오카산 300엔, 전반적으로 30%정도 하락함. 전갱이와 같이 콩치에 밀려서 후반기에 걸쳐 시세는 침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산지별 비율은 홋가이도 70%, 시즈오카 30%정도임. 시즈오카산 증가에 따라 홋가이도산 등을 합한 시세는 조금 낮아질 전망이다.

• 오징어

- 입하는 하루평균 8,700박스이고 고기잡이 호전으로 홋가이도산과 아오모리산은 조금 저조한 가격으로 입하됨. 주 사이즈는 20마리 중심으로 1박스 2,000엔 수준임.
- 산지비율은 홋가이도산 60%, 아오모리 40%수준임. 홋가이도 및 아오모리산이 순조롭게 입하할 것으로 전망하고, 가격도 안정권으로 예측하고 있음.

• 가다랑어

- 입하는 하루평균 7,700박스이고 미야기산이 대부분 약간 증가함. 한편, 같은 산지에 비해서 신선도 면에서 우수한 나가사키산은 높은 가격으로 거래됨. 도매가격 4kg 800엔 정도가 20% 상승하였음.
- 산지별 비율은 미야기산 65%, 나가사키 25%, 이와데 10%이하 정도임. 시세는 잠시 소강상태에 빠진 후 조금 가격이 하락 할 것으로 예측됨.

• 콩치

- 입하는 하루에 2만4,600박스(지난주 1만200박스) 홋가이도산이 대폭 증가함. 하반기에는 소량이지만 이와데와 미야기산도 출회하는 등 예전에도 없는 품질상태가 계속됨.
- 시세는 20마리(4kg) kg당 800~600엔, 23마리 600~400엔, 25마리 500~350엔 등 일주일 사이에 3분의1 내림감. 이후에도 시세는 일단 내려갈 것으로 예측됨.

2013년 8월 수출 금액

(단위=수량:톤, 금액: 백만엔)

품목	2013년 8월				2013년 1~8월			
	수량	전년비	금액	전년비	수량	전년비	금액	전년비
다진생선	5,512	39%	1,231	32%	52,115	83%	12,596	73%
전갱이	2,284	114%	590	154%	17,107	85%	3,288	102%
고등어	917	90%	230	79%	23,031	125%	4,548	101%
가다랑어	1,326	72%	224	78%	12,287	75%	2,107	85%
날개다랑어	1,234	109%	401	105%	11,174	161%	3,060	144%
황다랑어	2,903	58%	1,530	66%	32,179	77%	15,455	81%
참치	498	102%	1,260	97%	12,353	137%	32,466	132%
눈다랑어	6,006	70%	4,062	68%	59,211	87%	37,370	72%
연어.송어	18,797	108%	14,475	148%	186,263	100%	102,189	98%
황돔	10,359	266%	3,436	242%	22,097	148%	7,600	131%
가지미.넙치	5,705	98%	2,946	112%	34,220	91%	16,398	98%
명란젓	321	56%	268	71%	31,561	72%	28,040	67%
새우	15,312	88%	17,267	121%	115,866	97%	122,420	119%
꽃게	4,265	70%	4,149	84%	32,277	86%	31,183	88%
오징어	12,582	148%	4,222	144%	58,181	118%	25,271	122%
문어	4,394	130%	2,489	96%	38,926	138%	23,191	99%
장어조제품	369	105%	1,000	94%	6,286	84%	18,663	73%
수산물합계	205,884	88%	129,247	108%	1,617,259	91%	987,647	100%

※수산물국제유통협의회

2013년 8월 외환: US 달러=98.47엔(2012년 8월 78.47엔)

2013년 8월 수입 금액

(단위=수량:톤, 금액: 백만엔)

품목	2013년 8월				2013년 1~8월			
	수량	전년비	금액	전년비	수량	전년비	금액	전년비
연어.송어	759	116%	171	77%	14,509	169%	3,324	113%
날개다랑어	4,423	223%	926	193%	14,417	100%	2,997	80%
가다랑어	5,092	129%	900	140%	36,775	189%	6,930	253%
대구	6,072	264%	464	234%	42,597	116%	3,822	116%
멸치(정어리)	1,036	27%	97	41%	52,538	273%	3,899	320%
고등어	8,514	105%	876	141%	87,897	127%	9,054	149%
가리비	3,636	270%	4,570	292%	46,262	243%	22,648	223%
수산물합계	41,268	115%	19,245	151%	406,126	137%	137,812	131%

※수산물국제유통협의회